

도곡동 우성 캐릭터 · 199

Togok-dong WooSung Character. 199

韓玄鎬 / (주) 건원국제건축사 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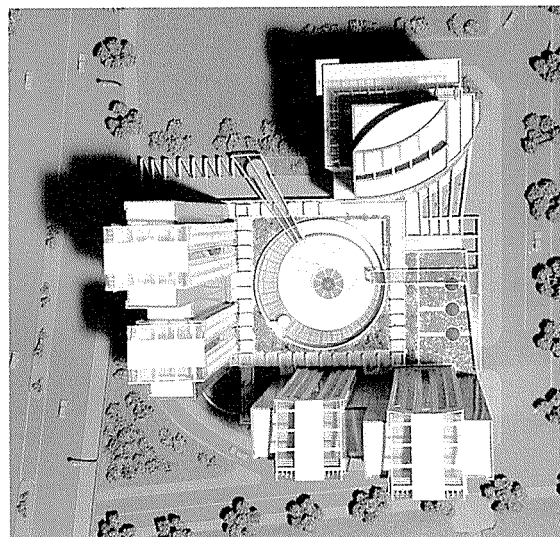
Designed by Han Hyun-Ho



투시도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24외 2필지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역, 주차장 정비지구
 대지면적 / 10,690.50 m²
 건축면적 / 5,956.28 m²
 연면적 / 100,496.73 m²
 건폐율 / 55.7%
 용적률 / 620.37%
 규모 / 지하 4층, 지상 31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시공 / (주)우성건설

Location / 467-24, Togok-dong, Kangnam-gu, Seoul
 District / Commercial, Parking
 Site Area / 10,690.50 m²
 Bldg. Area / 5,956.28 m²
 Gross Floor Area / 100,496.73 m²
 Bldg. Coverage Ratio / 55.7%
 Gross Floor Ratio / 620.37%
 Bldg. Scale / 4 Stories Below Ground, 31 Stories Above Ground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eel
 Construction / Woosung construction company



모형 1



모형 2

언주로를 따라 매봉터널을 지나면 양재천을 면하고 있는 계획지에 이른다. 양재천을 넘는 구룡·대모산의 푸르름과 멀리 남서쪽 청계산의 맑고 시원한 바람자락이 매봉앞에 이르러, 서울에서 보기드문 훌륭한 주거환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 주상복합시설이 적합하리라 생각되었고, 계획하는 동안에 수많은 논의와 대안속에서도 일반화된 주거와는 다른 몇몇의 시도는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첫째, 기존 집합주거에 대한 일반해를 바탕으로 엄밀하게 분석된 입주 예상자들에게 대한 특수해를 찾아, 새로운 형식의 주거를 제안하려는 시도이다. 도심의 주상복합시설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일반 집합주거의 입주자상황과는 다른 상황과 상이한 주거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의 주거문화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둔 새로운 주거형식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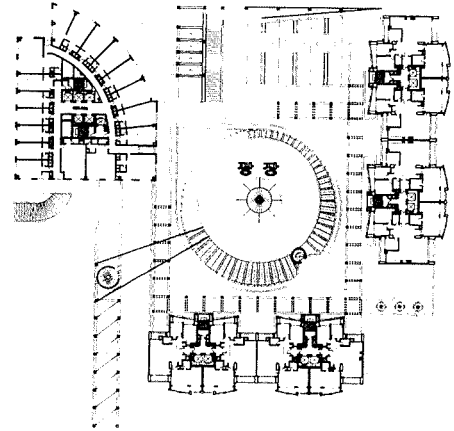
둘째, 높은 밀도를 유지하면서 주거와 상업시설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복합시켜야 하는 문제인데, 기존의 상하수직으로 복합시키는 방식보다는 Zoning을 수평으로 하므로써 상업시설로 부터 거주자들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였고, 대지와 거주공간과의 연결에 의미를 두었다.

셋째로는 단지에 대한 Identity부여와 주거에 대한 기억의 유지이다. 보행동선의 수평수직의 기능적 연결 고리가 되면서 가로와 주거사이의 전이 공간이 형성되도록 Innercourt를 형성하여 도심주거에서 상실되기 쉬운 거주자들의 영역성을 확보해 주면서 주거에 대한 기억을 재생시켜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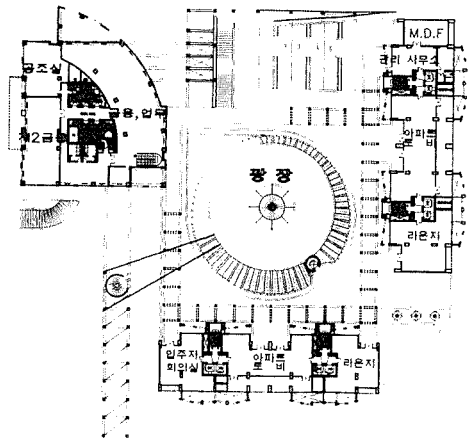
넷째, 높은 밀도는 해결 해야할 문제인 동시에 다른 주거와 차별화되는 하나의 계획동기(Motive)가 되었고, 높은 밀도의 용적을 요구하는 도심주거에서는 보다 밀도가 적어 보이는 고통탑상형 매스(mass)의 선택이 요구되어지는데, 이는 일률적인 향에 따른 배치보다는 전망을 중요시하는 거주자들의 추세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도심지 주거에서의 향에 대한 개념(일조에서 전망으로)의 전환을 시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고통Mass의 선택은 계획지의 입지적 상황에서 중요한 도시경관 요소가 되도록 계획되었고 단지전체 Mass를 구성하는데 있어 양재천과 언주요가 교차하는 코너부분이 가지는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체단지 Mass를 구성하였으며, 주거와 상업시설의 Mass를 각각의 성격이 표현되도록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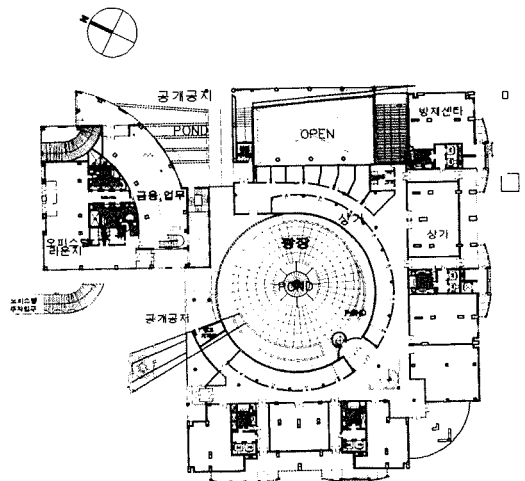
이러한 시도들이 건축적인 개념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않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도심속에 기억될 장소가 되길 바란다.



기준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